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장에 등장한 '전남농산어촌유학'

전남교육청, 서울 코엑스에서 3일 간 홍보 부스 운영해 총 250여 개 기관 및 단체, 기업 참가하는 큰 행사 참여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소개되며 또 한 번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서울 삼성동 Coex 전시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장에서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매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 교육청 후원 아래 개최되며,

교육 기관 및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레고, EBS 등 총 250여 개 기관 및 단체, 기업이 참가하는 큰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교육 관련 행사인 만큼 3일 동안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으며, 개막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대중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 기간 국제교육 컨퍼런스,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전남교육청은 전남농산어촌유학 홍보·상담 부스

를 운영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인 만큼 농산어촌유학 사업 참여 가능 수요자층에 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합한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스 방문객들은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전남농산어촌유학은 코로나 시대 교육 대안으로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유입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행안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유학마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16개 시·군에 총 285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한



바 있으며, 시·군 지자체에서도 빈집 리모델링, 유학경비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전남농산어촌유학이 지자체와 연계한 전남교육청 특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

획이다."라면서, "특히, 사업의 내실화·안정화·지속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범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장성교육청, 장애 학생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실시



장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6일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관내 17개교 29가족 대상, 약 3주간 진행

'2022학년도 가족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관내 17개교 29가족을 대상으로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특기·적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

과·제빵 및 공예,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았던 과자집과 통소세지빵 만들기, 키링 및 레진 공예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고,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영 프로그램은 2월 5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곡성교육청, 슬기로운 중학교생활 운영



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곡성군 미래교육관에서 슬기로운 중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곡성교육지원청은 16일부터 1주일간 곡성 미래교육관에서 관내 중학교 진학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생활의 이해와 적응을 돕는 슬기로운 중학교생활을 운영한다. '슬기로운 생활'은 곡성교육지원청의 대표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부터 고등학교 생활, 교사,

학부모 생활까지 교육 주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전환기 학생들의 상급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학교에 가면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는 '중학교 생활', 사춘기 학생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감정 코칭', 중학교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 코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들을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수학(영어)을 부탁해'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통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과 두려움들을 해소하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줄 예정이다. 곡성=양혜영기자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사랑키움 가족체험 1분기 '국악놀이터' 시작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23년도 가족체험 1분기 '국악놀이터'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1분기 가족체험 특별체험으로 진행되는 '국악놀이'는 한복저고리를 만들어 입어보고 놀이를 시작했으며 해금과 거문고 연주 감상하기, 국악기 연주하기, 버나 돌리기 등을 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유산 남사당놀이 중에 나오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버나돌리기는 가족들이 금방 배워 돌리고, 던지고, 받는 놀이 등을 하였다. 다양한 국악기를 접하고 우리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악놀이터에 참여한 유아는 "잘한다" 추임새가 정말 신나요, "버나 돌리기 집에서 또 하고 싶어요"라며 즐거워하였

전남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가족 대상으로 실시



고, 한 아버지는 "아이와 우리 문화유산 중 일부분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보성 별교공공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성료

보성별교공공도서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 '2023. 겨울독서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유익한 방학 생활을 보내도록 기획된 이번 독서교실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독서 토론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운영되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멸종위기동물 등의 소주제와 관련된 선정도서를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태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독서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뉴스에서 환경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체험들을 하니 환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